

# 폐지 줍는 어르신들 밤길 안전해진다

광주시, 야광조끼·안전물 제공

실태조사·찾아가는 안전교육도

광주시가 길거리에서 폐지나 고물을 줍는 노인들의 보호에 나선다.

광주 도심 곳곳에는 골목길이나 이면도로, 간선도로 할 것 없이 폐지 줍는 노인들이 늘면서 교통사고와 안전사고의 위험이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폐지를 줍다가 골목길에서 갑자기 튀어

나오는 노인들 탓에 운전자들이 당황하는 경우가 많을 뿐만 아니라 도로에서 손수레를 끌고 다니는 노인들도 상당수여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일부 노인들의 경우 저녁에도 폐지를 줍는 경우가 있어 운전자들의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광주시는 폐지 줍는 어르신들의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야광 안전조끼와 손수레 안전표시물 등을 지원하고, 찾아가는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한다.

시는 최대한 지원 대상이 누락되지 않도록

29일부터 4월1일까지 자치구별로 실태 조사를 하고, 안전조끼 착용 독려 등 어르신 보호를 위한 협조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폐지 주거려치인 민간 고물상 현황도 파악할 방침이다.

지난해 8월 기준으로 관내 재활용품을 수거하는 어르신은 모두 756명으로, 65세 이상이 83.3%에 달해 안전사고에 상당히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4월 실태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구청장 추천 등을 받아 지원 대상을 선정하고, 야광안전조끼와 손수레 안전표시물 등 보호용품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광주시교통문화연수원과 연계해 안전한 보행학습과 위험구간 대처 요령 등 '찾아가는 어르신·장애인 교통안전교육'을 운영하고, 집합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어르신은 개별 방문해 별도로 교육할 계획이다.

회사원 정선중씨는 "노인들의 안전을 지켜주기 위한 시의 노력과 함께 운전자 등 이웃의 관심과 주의를 필요하다"면서 "폐지줍는 노인들을 전수 조사해 구청 차원에서 제도적으로 지원할 부분이 있으면 빠지지 않도록 챙겨주길 바란다"고 건의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금남로 보·차도 정비

5·18 전까지 완료”

광주시는 아시아문화전당지구 보행환경 개선사업의 일환인 금남로 보·차도 정비공사를 5·18기념행사 전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단계별로 추진되는 보행환경 개선사업은 1단계 사업으로 금남로 일대를 우선 정비하고, 2단계사업으로 총장로와 예술의거리 일대를 정비한다.

금남로 정비사업은 보도 구간에 설치된 각종 조형물과 지장물을 이설 또는 철거한 뒤 노후화된 보도를 화강석으로 대체하고, 지하상가 입구를 리모델링하게 된다. 또 포장 시기가 오래되어 차량의 주행성을 떨어뜨리는 차도 구간을 재포장해 정비한다.

광주시 관계자는 “사업 추진에 따라 일부 차로 및 보행로의 차단으로 차량통제 등의 불편이 예상된다”면서 “공사구간은 우회나 서행을 당부하고, 시민불편을 최소화해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광주건보공단 전 직원 헌혈행사

헌혈사를 가졌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주지역본부(본부장 김백수)는 혈액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보건의료계를 위해 최근 지역본부 9층 대회의실에서 전 직원이 참여하는 사랑의 헌혈 행사를 가졌다. <건보공단 제공>

## 해빙기 재해취약시설 등 8천곳 안전점검

광주시, 국가안전대진단 실시

광주시가 지역안전관리추진단을 구성해 해빙기 재해취약지구, 화재취약 취약시설 등 모두 8000여 곳에 대해 대대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광주시는 범정부적 '산업연계형 국가안전대진단'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국가 안전대진단(이하 안전대진단)은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지난 16일부터 시작돼 4월30일까지 진행된다.

지난해 4월 세월호 침몰사고 이후 전국적으로 대형사고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사회 전반에서 예상되는 대형재난 및 안전사고 위험을 사전에 파악하고 해소하기 위해 시행된다.

진단결과를 토대로 즉시 시정조치사항은 현장 조치하고 추가 점검시설에 대해서는 민관합동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한 후 보수·보강할 계획이다.

시민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안전신고 전용 포털인 '안전신문고'를 시 홈페이지와 연계해 시민들이 보다 손쉽게 접속해서 안전신고를 할 수 있게 했다. 안전신문고는 시민들이 일상 생활에서 느끼는 안전위험 요소를 자발적으로 신고하면 신고된 내용을 원스톱 처리하는 포털사이트다.

또한 시민들의 안전신고 참여 유도를 위해 시·구 청사에 현수막, 배너, 홍보포스터 홍보와 함께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 스톱 앤 홍보도 병행 실시했다. /윤영기자 penfoot@kwangju.co.kr

## 북구, 지방세정평가 4년 연속 우수기관

어린이 세금교실 등 호응

광주 북구가 광주시 주관 '2015 회계연도 지방세정 종합평가'에서 4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기관표창과 함께 8900만원의 포상금을 받는다고 28일 밝혔다.

북구는 체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방세 300만원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해 징수 전담반을 구성,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추적·징수했다. 또 전 직원 책임징수제를 실시하는 등 강도 높은 징수 활동을 펼쳐왔다. 그 결과 지난해 부과한 지방세 2810억원 중 2700억원을 징수했으며, 46억원의 체납액 징수 실적을 올렸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또한 북구는 '어린이 세금교실', '지방세 납세도우센터' 등 맞춤형 세정시책으로 주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올해도 '세외수입 통합고지서', '지방세 미리 알람 서비스'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북구는 지난 2012년 회계연도 평가부터 4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됐으며, 그동안 받은 포상금도 모두 3억5100만원에 달한다.

북구 관계자는 "4년 연속 우수기관에 선정된 것은 직원들의 노력 덕분"이라며 "앞으로도 주민을 위한 다양한 납세편의 시책으로 납세자중심의 세정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 광주형 협업과제 11개 선정

마을공동체·광주호 생태타운

광주시가 최근 행정 화두인 '협업' 성과를 높이고 시범과제 11개를 선정했다.

시는 정부 3.0 추진에 맞춰 올해 광주형 협업모델을 선정했다고 지난 28일 밝혔다.

선정된 과제는 ▲함께하는 마을공동체 ▲스마트행정 ▲중국과 친해지기 정책 ▲시민안전 최상위 도시구현 ▲문화전당 주변 활성화 ▲음식물 쓰레기 감량 정책 ▲광주호 주변 생태타운 조성사업 ▲그린 라이트(Green Light) 광주전 프로젝트 ▲청년이 행복한 '청년도시 광주' ▲명품 강소기업 발굴·육성 ▲미용실·네일샵 종사자 건강증진 사업이다. /윤영기자 penfoot@kwangju.co.kr

특히 광주호 생태타운 사업은 역사문화와 자연경관 보존 원칙에 따라 부서·기관별 사업을 총괄하는 역점 과제로 시는 꼽았다.

광주호 주변 누정(樓亭)을 활용한 관광 프로그램 개발, 무등산 탐방로·무등길 등을 연결하는 탐방로 조성, 호수생태원 확장 등이 주요 내용이다.

시는 협업 활성화를 위해 협업 전용회의실도 다음달 중 마련할 예정이다.

또 책임관, 코디네이터, 간사를 대상으로 팀 운영관리 등 컨설팅, 간담회, 워크숍 등도 하기로 했다.

시는 또 연말에 성과를 평가해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참여자에게 인센티브도 줘 협업을 조직문화로 자리 잡도록 할 계획이다. /윤영기자 penfoot@kwangju.co.kr



영아보호소 봉사 한국건강관리협회 광주전남지부(본부장 김병길)는 최근 광주영아일시보호소에서 직원 및 어머니봉사단 20여명이 참여해 빨래 널기, 기저귀 개기, 아기 돌보기와 환경정화활동을 벌였다. <건협 제공>

## 도심 10곳 미관 개선 문화공간으로

시, 유안초교 등 경관개선사업

광주시는 도시 미관을 해치는 시설물을 개선해 생활 속 문화공간으로 조성하고, 아름다운 도시 경관을 확보하기 위한 '경관취약지 개선사업'을 확대 추진한다.

경관취약지 개선사업은 도시 경관이 불량하고 단절된 공간을 시민과 소통하는 공간으로 개선하고, 시민 참여를 위한 공공문화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시는 지난 2009년부터 해마다 1곳을 선정해 사업을 추진해왔다.

올해는 개선 사업 대상지가 총 10곳으로 확대된다.

먼저, 민선6기 시정 철학을 반영해 시민 눈높이에서 시민생활 밀착형 도시경관 개선사업 대상지를 선정키로 하고 별도 위원회를 구성해 북구 운암동 대주아파트·우미1차아파트, 남구 유안초등학교 담장 등 3곳을 개선 사업 대상으로 선정, 현재 추진 중이다.

이와 함께 해마다 추진된 경관취약지 개선사업 대상 1곳은 3월중에 사업제안서를 공모할 계획이다.

공모 참가 자격은 해당 사업의 직접 설계가 가능한 비영리법인 또는 연구기관으로 사업대상지는 광주광역시 내 경관이 불량한 내대지, 방치된 공공공지, 소용차단 시설물 등이다.

이어 올 하반기 추경 예산을 확보하는 대로 자치구별 사업도 추가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시는 2015년까지 북구 예술고등학교 옹벽 개선, 동구 계림동 푸른길공원 주변 파빌리온(휴게공간) 설치, 산책로 조성 등 경관취약지 7곳을 개선하고 시민 참여를 위한 공공문화활동 프로그램을 꾸준히 운영하고 있다.

그 결과 국토교통부가 주최한 2012년 대한민국 경관대상에서 대상을 수상하고, 2013년에는 문화체육부 주최 대한민국 공간문화대상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유한회사 제이앤와이 도시개발은 NPL(부실채권) 채권매입, 매각, 중개, 경락잔금대출, 질권대출 & 부동산 컨설팅 등을 원스톱으로 처리하고 있는 부동산 전문기업입니다.**

### NPL 관련업무를 원스톱으로!

- NPL매입 • NPL매도 • NPL중개 • NPL질권대출 • 경락잔금대출 • NPL등기업무

**NPL 투자는 채권 투자다.** 은행 등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해준 대출이 부실화할 때를 대비해 설정해 둔 "근저당권"을 거래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며 부실채권거래가 경매보다 수익성이 높으며 NPL 대박은 무량불건 선별이 중요하며 경매보다 한 발 앞선 부실채권을 노려보는 것이 월등한 수익을 창출 합니다.

#### NPL(근저당권)투자는 ?

- \* 안전한 투자를 원하시는 분
- \*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소유하지 않고 단기적으로 고수익을 올리고 싶으신 분
- \* 경매에 입찰하여 100% 낙찰 받고 싶으신 분
- \* 양도소득세나 이자소득세가 부담이 되시는 분
- \* 상가,공장,토지,숙박시설등을 반드시 낙찰받고 싶으신 분

광주지역 추천물건 외 다수 물건 확보 되었으며 전국 특수물건 취급 가능

**[법률자문업무협약 법무법인 지산]**

## 전국 최대 우량 NPL 보유

NPL파트너스는 하나/기업/현대스위스/솔로몬 등 다수의 금융기관 담보부 NPL매입, MG질권대출협약,JB캐피탈 NPL사업협약,담보부 NPL 수익계약 매입/중개 4000억원 돌파, 수협중앙회 NPL 질권대출 수탁법인 승인된 NPL전문기업입니다.

**경매 개시 이전, 이후 금융권 근저당권 채권, 개인 가압류채권 후 순위 근저당권, 가압류 채권 매입합니다.**

NPL매입,중개,질권대출 담당  
경매경락잔금대출 지원담당

☎ 062-383-4987  
본부장 010-4557-3034  
이 사 010-2170-3034

## 유한회사 제이앤와이도시개발

사업자등록번호 435-87-00319 / 법인등록번호 200114-0062461